

미국의 미래와 2020년 7월 18일 - 두 번째

메시지를 먹다

Jeff Pippenger

2023-08-24

바로 은혜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다. 불의한 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럽게 하며, 의로운 자는 여전히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여전히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0, 11.

요한계시록 5장에서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손에는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이 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이 있는 것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5:1.

1절에서 시작된 이야기 흐름이 7장까지 이어지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된 예수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책을 받아 차례로 봉인들을 열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여섯째 봉인을 열고 그 봉인이 상징하는 메시지를 제시할 때 6장은 끝난다. 6장은 질문으로 마무리되며, 그 질문은 7장으로 이어지고, 7장에서 우리는 6장 마지막 절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한다.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 6:17.

제7장은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를 소개한다. 제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제시된 다음, 우리는 일곱 인 가운데 마지막인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봉해진 다른 예언은 제10장의 '일곱 우레'뿐이다. 요점은, 요한계시록에서 봉해져 있으면서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풀릴 수 있는 유일한 예언이 바로 '일곱 우레'라는 것이다.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퓨처 포 아메리카는 '일곱 우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왔다. '일곱 우레'는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밀러파 운동의 역사를 나타낸다. 화이트 자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일곱 우레'가 '그 순서대로 밝혀질 장래의 사건들'을 또한 나타낸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예언적 실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박국의 표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 제시된 일곱 천둥의 진리는 여전히 진리이지만, 올해 8월 이후 주님께서 이 주제들에 대해 그분의 손을 거두셨고 더 많은 이해가 드러났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부터 시작하여 그 장에 대한 화이트 자매의 주석을 살펴볼 것이다. 그 전에, 일곱 천둥에 대한 고찰과는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요점을 밝혀야 한다.

첫 번째 요점은, 이제 열려 드러난 일곱 우레의 진리를 규명하려면 일곱 우레가 대표하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을 여러 진리의 맥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에 연결된 두 번째 요점은, 이 글들의 오디오 발표를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이 읽고 말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글은 그 시간 안에 맞춰야 합니다. 이 연구의 시작부터 말씀드리지만, 일곱 우레가 나타내는 진리를 확립하려면 몇 편의 글이 필요합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구름을 입었고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의 손에는 퍼진 작은 책이 있었고, 그는 오른발을 바다 위에, 왼발을 땅 위에 놓고, 사자가 울부짖을 때와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었다.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낸 뒤에, 내가 쓰러 하였으나 하늘에서 소리가 내게 이르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하여 기록하지 말라' 하였다. 내가 바다 위와 땅 위에서 있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영원무궁히 살아 계시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말하되, 더 이상 지체함이 없으리라.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였다. 또 내가 하늘에서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서 있는 천사의 손에 퍼져 있는 작은 책을 가져오라.' 내가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십시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가져다가 먹어 버리라. 네 배는 쓰게 하려니와,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였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었더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내 배는 쓰게 되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였다. 요한계시록 10:1-11.

제10장을 논평하며, 화이트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한에게 지시하신 그 능하신 천사는 다른 아님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가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을 육지 위에 두신 것은 사탄과의 위대한 대쟁투가 마무리되는 장면에서 그분이 담당하시는 역할을 보여 주신다. 이러한 자세는 온 땅 위에 대한 그분의 지고한 권능과 권위를 나타낸다. 그 대쟁투는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격렬하고 단호해졌으며, 어둠의 권세의 주도면밀한 활동이 절정에 이르는 결말의 장면까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사탄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온 세상과 교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능하신 천사는 주의를 요구하신다. 그는 큰 음성으로 외치신다. 그는 진리에 대항하기 위해 사탄과 연합한 자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지닌 권능과 권위를 보이실 것이다.

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낸 뒤에,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한에게도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진다: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은 봉하여 두라.' 이것들은 장차 그 순서대로 드러나게 될 미래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자기 분깃에 설 것이다. 요한은 작은 책의 봉인이 풀리는 것을 본다. 그러면 다니엘의 예언들은 세상에 전해질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메시지들 안에서 제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작은 책의 봉인 해제는 때와 관련된 메시지였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다. 하나는 예언이요 다른 하나는 계시며, 하나는 봉함된 책이요 다른 하나는 열린 책이다. 요한은 우레가 말한 비밀들을 들었으나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한에게 주어진 특별한 빛은 일곱 우레에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전개될 사건들의 개요였다.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알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으니, 그들의 믿음이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가장 놀랍고 진보된 진리들이 선포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되어야 했으나, 이 기별들이 그들의 특정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그 이상의 빛이 계시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는 한 발을 바다에 두고 서서 더 이상 때가 없을 것이라고 가장 엄숙한 맹세로 선포하는 천사로 상징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7권, 971쪽.

1840년 8월 11일에 강림하신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이셨고, 그분의 손에는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신 기별이 들려 있었다. 요한이 먹은 것은 기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기별이었다. 본문에서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1840년 8월 11일에 강림하시어 첫째 천사의 기별에 권능이 부여되었음을 표징하시고, 그로써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될 시점을 밝히셨지만, 요한이 먹어야 했던 그 작은 책은 개신교가 그 주도권을 밀러파에게 넘겨주던 때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작은 책을 가지고 강림하셨을 때, 그분은 광야의 교회와의 언약 관계를 종결하시고 동시에 밀러파를 그분의 새롭게 선택된 언약 백성으로 지정하셨다. 밀러파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무리였다. 예언자들은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내 발로 일으켜 세우셨으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내게 반역한 반역하는 나라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오늘 이 날까지 내게 범죄하였느니라. 그들은 뻔뻔한 자녀들이요 마음이 완고하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므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리라. 너 인자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네 곁에 찢레와 가시가 있고 네가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낮을 보고 놀라지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말할지니,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들으라. 너는 그 반역하는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로 보내어졌고, 보라, 그 손에 두루마리 한 권이 있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니, 그것은 안팎으로 글이 있었고,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가 먹게 하셨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 네 배를 채우고, 네 창자를 가득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아가 내 말로 그들에게 말하라. 이는 내가 낮선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로 보내진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보내졌음이라.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낮선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에게로 보낸 것이 아니다. 진실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까닭이니라. 보라, 내가 네 얼굴을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여 굳게 하였고,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보다 굳게 하였느니라. 내가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같이 만들었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낮을 보고 놀라지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말할 모든 말을 네 마음에 받고 네 귀로 들으라. 에스겔 2:1-3:10.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받아 먹은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오셨을 때, 그것은 그의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 요한과 에스겔은 둘 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에스겔이 그랬듯이, 요한 또한 이스라엘 밖의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에게 전할 메시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더라면 받아들였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다"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all the house")은 완전히 반역하였다. 1840년의 이스라엘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광야의 교회로 대표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유예 기간의 잔을 가득 채웠다.

이스라엘이 그 메시지를 듣지 않더라도, 선지자는 그들이 첫째 천사의 빛을 거절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작은 책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여전히 받았다. 심판의 책들에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었다. 선지자를 거절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에게 전해 준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이며, 가브리엘은 그 메시지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손에 작은 책의 메시지를 들고 강림하신 것은 그분의 세례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과 상응하였다. 그것은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미리 예표되었으며, 바로 그 동일한 이정표가 모든 개혁 운동에 존재한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모든 위대한 개혁이나 종교 운동에서 놀라운 유사성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오늘날의 중요한 운동들은 과거의 운동들에 상응하며, 옛 시대 교회의 경험은 우리의 시대를 위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대쟁투, 343쪽.

1840년 8월 11일 오스만 제국의 패권이 종말을 맞은 사건은, (그때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던 작은 책을 요한과 에스겔이 먹었던 때다,) 1798년에 "끝의 때"에 "도착"했던 첫째 천사의 기별의 "권능 부여"를 표시한다. 그것은 밀러주의자들의 주된 예언 규칙, 곧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원칙이 확증됨으로써 "권능을 부여받았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때 하셨던 것처럼 밀러주의자 성전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하셨다.

나dana엘의 흔들리던 믿음은 이제 굳세어졌고,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사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이들 처음 몇 명의 제자들을 통해 기독교 교회의 기초가 개인의 노력으로 세워지고 있었다. 요한은 먼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그런 다음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 형제를 찾아 그를 그리스도께 데려왔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 빌립을 불러 자신을 따르게 하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으러 갔다." 예언의 영, 제2권, 66.

1840년 8월 11일, 그리스도께서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강림하셨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나타난 개혁 운동 속에서 이미 예표되어 있었다. 모든 개혁 운동은 동일한 이정표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와 그가 이끈 개혁 운동에도 같은 이정표가 있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의 침례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예표했으며, 그것은 다시 1840년을 예표했고, 그 1840년은 다시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강림한 2001년 9월 11일을 예표한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의 '도착', 둘째 천사의 메시지의 '도착', 셋째 천사의 메시지의 '도착'은 모두 천사들로 상징된다. 첫째 천사는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고, 둘째는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으며, 셋째는 손에 양피지를 들고 있었다.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진리가 확정된다. 세 천사 모두, 그들이 도착할 때든 권능을 받을 때든, 손에 메시지를 들고 있다.

요한과 에스겔은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권능을 받았을" 때 그 메시지를 먹은 이들을 대표하며, 이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1798년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역사적 이정표이다.

메시지의 '도래'와 그 '권능 부여' 사이의 차이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구분이다. 다음 본문을 살펴볼 때, 첫째 천사의 목적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밝히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목적과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하라. 또한 각 메시지는 분리를 일으켜 예배자를 두 부류로 만든다는 점에도 유의하라.

나는 하늘 전체가 땅에서 진행되는 일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능한 천사[첫째 천사]에게 내려가 땅의 거민들에게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경고하라는 사명을 맡기셨다. 그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의 임재를 떠날 때, 지극히 밝고 영광스러운 빛이 그의 앞서 갔다. 나는 그의 사명이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비추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였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매우 엄숙해 보였고, 다른 이들은 기쁘고 황홀해했다. 그 빛을 받은 모든 이들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빛은 모든 이에게 비추었지만, 어떤 이들은 단지 그 영광 아래 놓였을 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많은 이들이 큰 분노로 가득 찼다. 목회자들과 백성들이 악한 자들과 연합하여 그 능한 천사가 비추는 빛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모든 이들은 세상에서 물러나 서로 굳게 연합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빛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분주하게 몰두하고 있었다. 그 빛을 거절한 무리는 어둠 속에 남겨졌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가 그들에게 제시될 때 그들이 드러내는 품성을 기록하기 위해, 자신을 그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지극한 관심으로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들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 경멸과 조롱과 증오로 그 하늘의 메시지를 외면하자, 손에 양피지를 든 한 천사가 그 수치스러운 기록을 적었다. 예수께서 자신을 그분의 추종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온 하늘이 분노로 가득 찼다.

나는 믿고 기다리던 이들이 기대하던 때에 그들의 주님을 보지 못해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장래를 감추시고 자신의 백성을 결단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목적하셨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정한 때를 선포하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탄은 심판과 은혜 기간의 끝과 관련된 큰 사건들을 아주 먼 미래로만 바라보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다. 백성들이 현재를 위한 준비를 간절히 구하도록 이끌리는 것이 필요했다.

시간이 흐르자, 천사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그 메시지를 멸시한 자들과 연합하여 실망한 이들을 조롱하며 공격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상태를 주목했다. 정해진 때가 지나면서 그들은 시험을 받아 드러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큰소리로 주장했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실패했다. 사탄은 예수의 신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상태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는 그들을 그의 뒷에 붙잡아 두고 있었다. 그는 대다수를 바른 길에서 떠나게 이끌었고, 그들은 다른 길로 하늘에 오르려 하고 있었다. 천사들은 시온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죄인들과 세속을 사랑하는 위선자들과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수의 참된 제자들을 지켜 왔으나, 타락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수를 뵙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마음이 불타던 이들은, 그분의 오심에 관해 말하지 말라고 자신들을 형제라 칭하는 자들에게 금지당했다. 천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사랑하는 남은 자들에게 동정했다.

또 다른 힘센 천사[둘째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가라는 사명을 받았다. 예수께서 그 천사의 손에 한 문서를 쥐여 주셨고, 그 천사가 지상에 이르자 외쳤다. '바벨론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때 나는 실망한 이들이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믿음과 소망으로 그들의 주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마치 잠든 사람들처럼 멍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흔적이 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실망한 이들은 성경을 통해 자신들이 지체의 때에 있음을, 그리고 환상이 성취되기를 인내로 기다려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들을 1843년에 주님을 기다리게 했던 동일한 증거가, 1844년에는 그분을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나는 대다수가 1843년에 그들의 믿음을 특징지었던 그 열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보았다. 그들의 실망이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켰다.

하나님의 백성이 둘째 천사의 외침에 하나가 되었을 때, 천상의 무리는 그 기별의 영향을 지대한 관심으로 주목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많은 이들이 실망한 자들을 향해 경멸과 조롱을 퍼붓는 것을 보았다. 조롱하는 입술에서 '너희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라는 말이 떨어질 때, 한 천사가 그것을 기록하였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나는 옛날에 저질러진 비슷한 죄를 가리켜 보이심을 받았다. 엘리야는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 그의 걸음은 엘리사에게 떨어졌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기를 부모에게서 배운 악한 소년들이 엘리사를 따라오며 조롱하여 외쳤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처럼 하나님의 종을 모욕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벌을 받았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비웃고 조롱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며, 창조주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다른 천사들에게 재빨리 날아가 그분의 백성의 시들어가는 믿음을 소생시키고 강하게 하며, 그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하늘에서 곧 이루어질 중요한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고 명하셨다. 나는 이 천사들이 예수께로부터 큰 권능과 빛을 받고,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여 둘째 천사의 일을 돕기 위해 신속히 땅으로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보라, 신랑이 오신다. 나가서 그분을 맞으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백성 위에 큰 빛이 비추었다. 그때 나는 이 실망한 자들이 일어나 둘째 천사와 조화를 이루어 "보라, 신랑이 오신다. 나가서 그분을 맞으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에게서 나온 빛이 사방의 어둠을 꿰뚫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이 빛이 퍼져 나가 그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들과 다투며 하나님이 백성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그들의 모든 빛과 능력을 다해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탄이 길을 가로막고 사람들의 마음을 빛에서 돌려세우려고 애썼음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의 일을 계속하였다....

예수님의 성소에서의 봉사가 마치고 그분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는 언약궤 앞에 서셨을 때, 그분은 또 다른 강력한 천사를 보내어 셋째 기별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다. 천사의 손에는 양피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고, 그는 권능과 위엄 가운데 땅으로 내려오면서, 인류가 일찍이 들어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위협과 함께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그들 앞에 놓인 시험과 고통의 때를 보여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의 접전에 끌려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유일한 소망은 굳게 서는 것이다. 비록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그들은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셋째 천사는 다음과 같이 그의 기별을 마무리한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 말씀을 되풀이하며 그는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긍휼이 아직 머무는 모든 자들과 무지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을 위하여 언약궤 앞에 서서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신다. 이 속죄는 살아 있는 의인들뿐 아니라 죽은 의인들을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죽었으나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빛을 받지 못하여 그 계명의 조목들을 범함으로써 무지 중에 죄를 지었던 모든 이들이 포함된다. 초기 저술, 245-254.

같은 책에서 몇 페이지 뒤에서, 방금 언급한 동일한 개념들을 다루며, 화이트 자매는 밀러주의 역사에서 세 가지 메시지의 거절이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표상되어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녀는 그곳에서 각 시험에서 승리해야 다음 시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점진적인 시험 과정을 밝혀 주는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한다.

나는 굳게 수호하며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공동체에 확립된 믿음을 동요시키려는 자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셨다. 나는 세 단계, 곧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동행하던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돌 하나라도 옮기거나 못 하나라도 건드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기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영혼들의 운명은 그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다시금 이 기별들을 따라 내려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체험을 얼마나 값비싸게 치르고 얻었는지를 보았다. 그것은 많은 고난과 치열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마침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단 위에 세우셨다. 나는 몇몇 사람이 그 단에 다가와 기초를 살펴보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즉시 그 위에 올라섰다. 다른 이들은 그 기초에 흠을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개선이 이루어지면 단이 더 완전해지고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바랐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살펴보고 단에서 내려와 그것이 잘못 놓였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나는 거의 모든 이가 그 단 위에 굳게 서서, 내려간 자들에게 불평을 그치라고 권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 건축자이시며, 그들이 그분을 거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 견고한 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회고하고, 한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불평하며 단을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겸손한 표정으로 다시 그 위에 올라섰다.

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선포를 다시금 주목하게 되었다.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도록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표상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요한의 증언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둘째 천사의 기별을 표상하는]으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다. 그분의 오심을 예고한 그 기별을 반대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탄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을 더 나아가, 그리스도[셋째 천사의 기별을 표상하는]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을 오순절 날의 축복[계시록 18장의 천사를 표상하는]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자신들을 놓았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유대인의 제사와 규례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보여 주었다. 위대한 희생이 드러졌고 받아들여졌으며, 오순절 날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속죄의 유익을 쏟아 부어 주시려는 곳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겨졌다. 그들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가질 수 있었던 모든 빛을 잃어버렸고, 여전히 아무 소용없는 자기들의 제사와 예물을 신뢰했다.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를 대신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그 변화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행로를 경악하며 바라본다. 그들은 그분께서 수치스러운 학대를 당하신 역사를 읽으면서 자신들은 그분을 사랑하며, 베드로처럼 그분을 부인하지도, 유대인들처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느낀다고 공언하는 예수에 대한 사랑을 시험대에 올리셨다.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가장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자처하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이들은 그분의 오심에 대한 복된 소식을 조롱하였다. 그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커녕, 그것을 미혹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없었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밤중 소리로부터도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앞선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이해는 너무나 어두워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 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어떤 빛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기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예수의 중보로부터 아무 유익도 받을 수 없다. 무익한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신 구역에 무익한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사탄은 이 기만을 기뻐하여 종교적인 외양을 취하고,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며, 자신의 권세와 표적들과 거짓 기적으로 역사하여 그들을 자신의 울무에 단단히 잡아매기 위해 일한다." 초기문집, 258-261쪽.

"Early Writings"라는 책의 구절들은 Future for America의 사역을 통해 여러 차례 가르쳐져 왔다. 그러나 이 구절들이 드러내는 진리들 가운데 그동안 간과되어 온 것들이 있다.

밀러파 운동의 역사를 이루는 이정표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개혁 운동들에 근거해 확립되었다. 각 개혁 운동마다 발견되는 이정표들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다면, 메시지가 언제 "도착"하고 언제 "권능을 받는지"를 구분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또한 병행하는 개혁 운동들에 익숙한 많은 이들조차 개혁 운동의 다양한 이정표들이 지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

재림주의의 시작과 끝의 사건들을 나타내는 "일곱 우레"는 은혜의 시간이 닫히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빛이다. 우리는 "일곱 우레"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개요"와 "그 순서대로 드러나게 될 장래의 사건들"을 모두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일곱 우레"에는 알파와 오메가의 서명이 담겨 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서술"은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표한다. 요한이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은 그의 책을 봉하라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이미 예표되어 있었다. 이는 "일곱 우레가 그 음성을 발한" 뒤에,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한에게도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하라"는 금지 명령이 내려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에스겔과 요한은 1840년에 첫째 천사가 권능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기별을 먹는 것을 둘 다 보여주며, 선지자 예레미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났던 실망을 보여준다.

주의 말씀을 발견하여 내가 그것을 먹었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려졌나이다. 나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였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손 때문에 홀로 앉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기 때문이니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항상하며, 나의 상처는 고칠 수 없어 낫기를 거절하나이까? 주께서 정녕 내게 거짓말하는 자와 같으시며, 마르는 물과 같이 되시겠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와 네가 내 앞에 서게 하리라. 네가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골라 내면 네가 내 입과 같이 되리라. 그들이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에게 견고한

늦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져낼 것임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며, 포악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리라. 예레미야 15:16-21.

예레미야는 요한과 에스겔이 그랬듯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발견했고, 그도 그 말씀을 먹었지만, 그 말씀은 실패한 메시지(물)가 되어 버렸다.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처럼 보였으나,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비난은 하박국에서 나타난 첫 번째 밀러주의자들의 실망 속에 예레미야를 위치시키는 열쇠를 제공한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며,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와 내가 책망을 받을 때 무엇이라 대답할지를 보려고 살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환상을 기록하여 그것을 판에 분명히 써서,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 이 환상은 아직 정한 때를 위함이니, 끝에는 말하여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2:1-3.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상은 하나님의 '손'의 인도를 받아 제작된 1843년 개척자 도표에 기록되었다.

"나는 1843년 도표가 주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고, 그것이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그 수치들은 그분이 원하신 그대로였음을 보았다. 또 그분의 손이 그 위를 덮어 몇몇 수치에 있는 한 가지 잘못을 숨기셨으므로, 그분의 손이 거두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초기 저술, 74.

"정한 때"인 1843년은 그 도표에 표시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1843년 도표라고 부른다. 그것은 하박국에서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명령을 성취하여 1842년에 출판되었다. 그 묵시는 복수형인 "판들" 위에 명백히 되어야 했는데, 이는 주께서 1843년 도표의 오류에서 그분의 손을 거두신 후 그것이 1850년 개척자 도표에서 바로잡힐 것임을 가리킨다. 그 오류는 첫 번째 실망을 낳았고, 예레미야는 1840년 8월 11일에 작은 책을 먹었으며 1843년의 "정한 때"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 실망한 자들을 대표한다.

1840년에 예레미야가 작은 책을 먹었을 때 그것은 그의 마음의 '기쁨과 환희'였으나, 실망이 찾아오자 그는 더 이상 '기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손' 때문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일부 숫자에 있는 오류'를 덮으셨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가 낙담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입'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다. 예레미야가 실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이 열 처녀의 비유의 지체의 때에 있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환상이 언제 임해야 하며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지를 정확히 밝혀 주는 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제시하는 목적은, 모든 천사들의 기별에서 그들의 '도래'와 '권능 부여'가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가르는 생사를 좌우하는 기별을 제시한다는 점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세 천사는 점진적인 시험 과정의 세 단계이다. 우리의 의도한 요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의 종결을 선포하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여섯 절이 봉인이 풀리며 '종말의 때'가 도래한 1989년 직후에 일곱 천둥에 대한 이해가 인식되었지만, 세

번째 천사의 역사의 끝에는 일곱 천둥에 대한 또 다른 봉인 해제가 있다는 점이다.

재림주의의 초기 역사는 1798년에 첫째 천사의 봉인이 풀릴 때 시작되어, 주께서 실망을 일으키기 위해 손으로 덮어 두셨던 한 진리의 봉인이 풀림으로써 끝난다. 그 후 그분은 손을 거두시고(봉인을 푸시고), 지체하는 때의 기별을 드러내셨다.

재림주의가 종결되는 역사는 1989년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봉인이 풀리는 데서 시작되며, 실망을 일으키기 위해 주께서 손으로 덮어 두셨던 한 진리에 대한 봉인이 풀리는 것으로 끝난다. 그분은 이제 그 손을 거두시며, 이로써 첫 번째 실망과 지체의 때에 대한 기별의 봉인을 여신다. 그분은 2020년 7월 18일의 목적에 대한 봉인을 열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고, 네가 내 앞에 서게 하리라. 네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골라내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되리라. 그들이 네게로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임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악한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포악한 자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리라. 예레미야 15:19-21.